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2. 11.(수) 11:00 / 2. 12.(목) 조간 배포 2026. 2. 11.(수) 09:00

통로 지나면 자동 보정…가축 보정 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

- 농촌진흥청, 가축 보정장치 2건 특허 출원·기술이전 완료
- 자동·맞춤형 보정 기술로 작업 안전성·정밀성 동시 확보
- 현장 맞춤형 실용 기술, 축산 현장 확산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가축 작업 안전성과 정밀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가축 보정 기술 2건을 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가축 이동 과정에서 자동으로 보정이 이루어지는 '통로형 가축 보정장치', 번식 작업 시 개체 체형에 맞춰 정밀하게 고정하는 '소 맞춤형 미세 보정장치' 2건이다.

통로형 가축 보정장치는 가축의 몸통 폭에 맞춰 조절되는 양옆 지지 구조와 앞가슴·목 위치를 멈춰 세우는 전면 지지부로 구성됐다. 이동 중에는 양옆 지지 구조가 몸통의 좌우 흔들림을 줄이고, 지정 위치에 도달하면 전면 지지부가 전진을 제한해 잠시 서 있는 자세가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이후 통로를 빠져나가면 자동으로 풀리는 구조로, 작업자가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

이 장치를 활용하면, 체중 측정, 백신 접종, 기본 검사 등 반복 작업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규모 농가와 연구 현장에서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맞춤형 미세 보정장치는 머리를 고정하는 장치와 몸통을 받쳐주는 측면 지지대를 함께 사용해 여러 지점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구조다. 작업 시에는 측면 지지대가 몸의 좌우 이동을 줄이고, 머리 고정 장치가 고개 움직임을 제한해 주사나 기구가 들어가는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한다.

고정 강도를 단계적으로 조절, 과도한 압박 없이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수정란 이식·채란·인공수정 등 정밀 작업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해당 기술 2건은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산업체에 이전돼 장비 제작 및 보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통로형 가축보정장치(번호 10-2024-0070422), 소 맞춤형 미세 보정 장치(번호 10-2023-0082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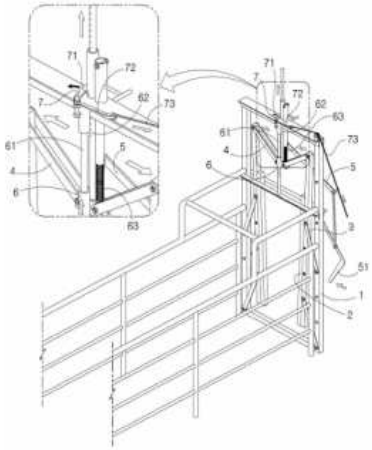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이번 특허 성과는 축산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요 기술을 파악하고, 적극 해결한 연구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나아가 가축 복지도 실현하는 연구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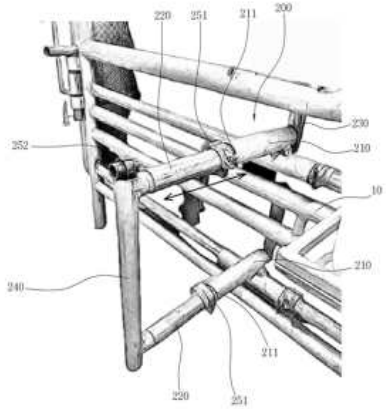
붙임. 통로형 가축 보정장치 및 소 맞춤형 미세 보정장치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책임자	센터장	한만희 (055-960-3510)
		담당자	연구사	이세영 (055-960-3531)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붙임 **사진**





통로형 가축 보정 장치

소 맞춤형 미세 보정장치